

‘건축문화행사 통합 연구’에 붙여

A comment about combination of cultural events for architecture

국토해양부는 ‘건축문화행사 관련 통합방안 연구’ 용역을 작년 12월 발주하여 금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용역의 일환으로 지난 6일 실시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보면서 우려와 함께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건축문화행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상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축가협회의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국전의 전통을 이어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고,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예산과 시상 등의 규모와 권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 이 밖에 매일경제신문의 대한민국토목건축기술대상이 있는 정도이다. 이 3개는 시상식과 함께 며칠간의 전시회를 열고 있으나 관람객은 수상 관련자와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 뿐, 일반 국민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건축가협회의 대한민국건축문화제만이 전체의 매스컴을 탈뿐 나머지 둘은 언론사가 끼어 있는 관계로 대중매체를 통한 뉴스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탈피하여 진정 권위를 찾으려면 첫째, 주최를 작품을 만드는 건축사단체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과 상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건축문화제를 개최하는 경우이다. 대한건축사협회의 경우 본 협회를 비롯한 16개 시·도회가 대부분 건축문화제를 열고 있다. 본 협회는 한국건축산업대전, 교육세미나,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건축사미술동호회 작품전 등을 열어 연인원 4만여 명이 축제에 참여하였고, 각 시·도는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또는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사작품 시상, 대학생작품 공모 시상, 대학생 졸업작품 공동 전시, 어린이 건축교실, 그림그리기, 글짓기, 레고, 과자 등을 이용한 집 짓기, 불우이웃 집 지어주기, 건축문화대학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건축제’를 열고 있다. 또한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광주의 ‘건축제’도 관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축이 되는 건축단체 등과 합심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설문서를 보면 “우리의 건축문화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국가 브랜드가 제고 되고 국격이 증진되는지” “행사를 통합, 세계적 건축문화행사로 추진해야 하는지” “정부의 건축문화 진흥정책을 알고 있는지” “한국문화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또한 전문가 그룹 FGI의 구성을 보면 건축사 2명, 기자 3명, 건축과 교수 5명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건축사가 주축이 되고 있는 한국건축문화제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IA)는 매년 유치도시에서 건축사대회를 개최하며 이 기간 중 작품에 대한 시상, 명예회원 추대, 건축자재 전시회, 세미나 교육 등을 개최하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건축사들이 모이는 건축 축제가 되며, 각주는 각주대로 그와 유사한 지역대회를 열고 있다.

우리도 각 시·도의 건축문화제에 국가의 경비지원을 극대화하여 예산부족으로 못하거나 축소된 부문을 활성화하고,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한 유기적 정보교환으로 더욱 알차게 육성하여야 하며, 국가차원에서는 기존의 건축문화시상제도에서도 정부와 언론사가 후원만 하고 주최는 건축사단체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10월 문화의 달 중 건축주간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의 건축축제를 연다면 대단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격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



장양순 / Chang, Yang-soon, KIRA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본지 및 건축문화신문 편집인
- 한서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